

출장보고서

I. 출장목적: OECD Economic Policy Committee(EPC) 회의 참석

II. 출장기간 : 2018. 5.14 ~ 19

III. 출장지 : 프랑스 파리(OECD)

IV. 출장자: 김영일 연구위원

V. 회의 개요 :

□ 주요 논의 의제 :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정책과제 등

* 1) 세계경제전망, 2) 지역별 경제동향 및 전망, 3) 세계 경제통합과 정책
합의, 4) 2060년까지 세계경제 시나리오, 5) 조세·이전 시스템 개혁 등

□ 이번 경제정책위원회(EPC)에서는 세계경제 동향·전망, 주요 경제권별 경제
동향·전망, 무역·금융 통합 진전에 따른 정책대응, 세계경제 장기전망, 세
제·이전지출 시스템 개혁 등에 대해 논의

○ (세계경제 동향·전망) 세계 경제는 향후 2년간 연 4%에 가까운 성장률
을 보이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양호한 성장전망이나 주요국 통화정책
정상화, 보호무역주의 등 하방 리스크 요인 잠재

○ (경제권별 경제 동향·전망) 미국 경제는 재정정책 확대 및 조세 개혁의
효과에 힘입어 2%대 후반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

- 중국 경제는 2017년에 이어 2018년 초반에도 견조한 성장세 유지할
것으로 예상되며, 긴축적 통화정책기조 속에 금융 안정이 향후 주요

정책목표 중 하나가 될 전망

- 유로지역 경제는 고용상황 개선과 소비자·기업심리 호조 등으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확산, 브렉시트협상 불확실성 등이 하방위험요인
- 일본 경제는 투자 및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고용여건 개선도 지속되고 있으며, 2018년에는 1.5% 성장, 2019년은 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른 소비 감소로 1% 성장 전망
- (무역·금융 통합 대응) 무역 및 금융 연계성 강화로 세계경제의 상호연계성(inter-connectedness)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요인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
 - 글로벌 리스크 증가, 전염효과 확대 등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,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공조체제 구축도 필요
- (세계경제 장기전망) 기본 시나리오 상 세계 GDP성장률은 3.5%(현재)에서 2060년1.5%로 감소하며, 이는 주로 인도·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기인
 - OECD 국가의 경우 정책개혁, 기술혁신, 공공투자 확대, 재정건전성 확충이 동반될 경우 기본 시나리오 보다 1인당 GDP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(세제 및 이전지출 제도개혁)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, 세전소득의 불평등 확대와 함께 조세·이전지출 모두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에 기인
 - 조세체계 개혁이 쉽지는 않지만, 질 좋은 일자리 지원, 이동성이 낮은 세원 확충, 소득세 개혁, 국제협력, 조세행정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